

### “제지업종 하반기 회복국면 전환할 듯”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제지업종 증시와 관련, 하반기에는 바닥을 탈피해 회복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 업종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하반기 남미 지역의 펄프공장 증설로 펄프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제품 단가는 내수 회복 본격화 시점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 보여 성수기인 4분기를 앞두고 업황이 서서히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이와 함께 한국제지와 신무림제지, 한솔제지 등의 2분기 실적은 내수 단가 인상으로 모두 전기 대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나 한국제지를 제외한 업체들의 수익성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 한솔제지 TPM · 6시그마 등 혁신운동 가속

한솔제지 장항공장은 2005년을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초일류 공장 실현'이라는 목표로 설정하고 '도전 2040'을 모토로 한 중기목표달성과 TPM, 6시그마, ERP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혁신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항공장은 최고의 시장품질 확보, 생산량 증대, 원가 절감, 시장불량률 감소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연산 7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지난 5월에는 생산량 6만929톤을 달성, 월 생산량으로는 최고 기록을 갱신하였고 1991년 첫 가동 이후 현재까지 총 634만톤에 이르는 누적생산량을 기록했다. 이에 장항공장은 올해 설비 개조를 준비 중인 PM22 Shoe Press에 이어 2006년 CM1호기 증속개조 및 PM21 Shoe Press 개조를 통해 향후에도 생산량을 더욱 증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117억원의 원가절감 목표 아래 총효율 향상, 6시그마 개선활동, 전사원 1인 1테마 개선, 분임조 개선 활동 등도 전개한다고 밝혔다.

### 한솔제지 회장단 사업장 순시



한솔제지는 회장단이 지난 6월21일부터 22일까지 한솔제지 장항공장을 시작으로 주요사업장을 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솔제지 관계자는 “경영진이 각 사업장의 현황을 직접 청취하고 현안 분석과 대응책 모색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이번 순시에서는 2005년 그룹의 경영계획인 ‘성장을 통한 가치창출 기반 확보’에 대한 각 사업장의 깊은 공감대와 적극적인 실천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컸다.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도전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순시가 됐다”고 전했다.

### 한솔제지 장항공장 KBS ‘스펀지’ 촬영 협조



한솔제지는 방송인 이희재, 이혁재, 김경란 등이 진행하는 KBS 교양 프로그램 ‘스펀지’ 7월23일 방송분 중 “종이에는 XXX가 있다”라는 코너와 관련, 한솔제지 장항공장 촬영을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협조와 관련, 한솔제지측은 종이에 대한 궁금증을 재미있게 풀이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 신무림제지 ‘네오아트 SE’ 신제품 설명회 개최



신무림제지가 지난 7월1일 출시된 신제품 ‘네오아트 SE(에스이)’의 본격적인 출시에 앞서 지난 6월23일 신제품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선보인 ‘네오아트 SE’는 기존 제품 대비 인쇄작업성이 뛰어나고, 색상표현력이 좋으며, 인쇄물의 보존성도 탁월한 고급 아트지이다.

신제품 설명회는 김인중 신무림제지 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신제품 개발과정 및 품질 특성에 대한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신제품 개발과정을 소개한 노희동 마케팅 팀장은 “신무림제지는 지난 1년간 해외 바이어들을 통해 당사 네오아트지의 강약점을 분석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마케팅 컨설팅을 시행해 국내 고객들이 원하는 아트지의 품질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무림제지는 신제품 설명회 중 ‘네오아트 SE’ 출시에 따른 대고객 서비스의 일환으로 인쇄작업성과 관련된 모든 클레임에 대해 조건 없는 보상을 약속했다. 또한 김 사장은 “‘네오아트 SE’는 인쇄 전 품질보다는 인쇄과정 및 인쇄 후 품질에 기초한 신개념의 제품’이라며 “국내 인쇄용지 업계의 향후 품질 개발이나 서비스 방향에도 영향을 주며 고객이 우선시되는 시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무림제지는 ‘네오아트 SE’ 출시로 오는 9월까지 기존 아트지를 모두 프리미엄 아트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 연말까지 15만톤을 판매, 전체 매출의 60%까지 끌어올려 기존 아트지 시장을 프리미엄 아트지로 새롭게 재편할 계획이다.

## 신무림제지 NEO 서비스 평가단 운영

신무림제지가 고객 최우선 경영 활동의 일환인 'NEO 서비스 평가단'을 운영한다.

이는 고객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의 품질 개선점을 찾아내고, 향후 품질 향상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고객 중심의 커뮤니티이다.

고객과의 원원을 목표로 공장방문, 품질조사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존 고객 모임과는 차별화해 품질 및 서비스 평가 활동을 기본으로 다양한 교육, 세미나, 문화행사 등을 통해 고객 위주의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신무림제지 국내 인쇄용지의 인쇄품질과 인쇄작업성 향상을 이끄는 'NEO 서비스 평가단'을 모집 중에 있으며, 인쇄 실무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문의 : 02-3485-1657/1644)

## 신무림제지 VIP 마케팅으로 여심잡기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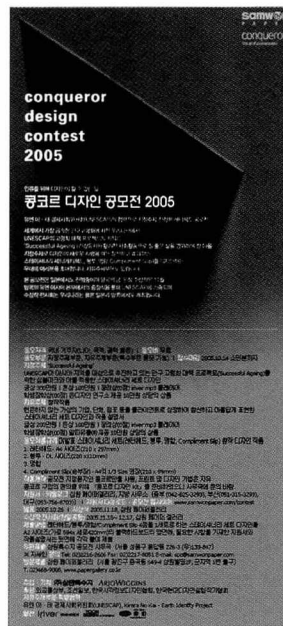


신무림제지가 백화점 등 소비재산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VIP마케팅을 제지업계 최초로 도입해 화제다. 신무림제지는 고객사인 지류유통업체 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타깃마케팅에서 한발 더 나가 VIP 고객 배우자의 여심잡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신무림제지는 VIP 고객 배우자 생일에 고객 가정을 직접 방문 깜짝 생일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꽃바구니와 조각와인을 선물함으로써 생일을 챙겼으며 올해에는 최근의 웰빙 열풍과 함께 초여름 무더위로 건강에 좋은 홍삼세트와 케익을 전달해 고객 건강까지 챙기면서 VIP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선물을 받은 고객 배우자들은 "매년 생일을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것에 적지 않게 감동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중 신무림제지 사장은 "VIP 고객 배우자 마케팅을 통해 경쟁사와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쌍용제지 쌍용C&B로 이름바꿔 새출발

쌍용C&B는 지난 7월5일 프록터앤갬블(P&G)의 자회사인 쌍용제지를 인수해 티슈 및 생활용품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는 P&G가 글로벌 화장지 브랜드 정착 시장에만 집중한다는 전략에 맞춰 티슈사업부문의 쌍용제지를 매각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쌍용제지의 사명은 쌍용C&B로 바뀌었으며 영업, 마케팅 등의 핵심 간부 전원은 그대로 유임됐다. 쌍용C&B는 과거 티슈 시장 점유율 1위였던 '코디(CODI)' 브랜드의 리뉴얼 등을 통해 생활용품 전문회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 삼원특수지 콩코르 디자인 공모전 2005



삼원특수지는 '콩코르 디자인 공모전 2005'를 개최, 오는 10월14일(소인본 유효)까지 응모작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정주제와 자유주제, 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지정주제 부문은 유엔 아·태경제사회 위원회(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가 아시아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 대책 프로젝트인 'Successful Ageing'을 위한 심볼마크와 이를 반영한 스테이셔널리 세트 디자인 분야이다. 자유주제 부문은 창작 작품으로 현존하

지 않는 가상의 기업, 단체, 점포 등을 고객으로 상정하여 표현한 스테이셔널리 세트 디자인 분야이다. 일본에서도 동시에 개최되고 있는 이번 공모전의 우수작품은 11월 초, 방콕의 유엔 아시아 부분에서의 증정식을 통해 UNESCAP에 기증되며 수상작 전시회는 한일 공동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방콕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 삼원특수지 측은 "UNESCAP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자 UNESCAP과의 협력으로 UNESCAP의 프로젝트를 'Successful Ageing'이라는 지정주제로 부여 받아 스테이셔널리 세트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공모전의 의의를 전했다.

## 계성제지 남한·풍만 제지 합병

인쇄용지 생산업체인 계성제지는 계열사인 남한제지와 풍만제지를 합병시킨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관련 남한제지는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1 대 0.5037368 비율로 풍만 제지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계성제지 관계자는 "두 계열사의 합병을 계기로 업무 간소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한제지는 신탄진과 정읍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연산능력은 19만톤이다. 풍만제지는 조치원공장에서 연산 12만톤의 종이를 생산하고 있다.

## 이원수 전신무림 부회장 중국첸밍그룹 CEO로

이원수 전 신무림제지 부회장이 중국 제지그룹인 산둥첸밍그룹의 최고경영자(CEO)인 총괄 총경리로 선임됐다. 지난 3월 퇴직한 이 전 부회장은 2002년부터 신무림제지 중국 합작법인 설립을 주도했으며 지난해 11월 산둥첸밍그룹과 연산 35만톤 규모의 제지 합작법인을 세우면서 산둥첸밍그룹과 인연을 맺었다.